



7월 갈치 금어기 해제… 제주 어민들 “결사반대”

어제 제주연안복합어선주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금어기 해제 일주일 전 통보… 조업 피해 주장
“대형 근해연승 어선 탓에 소형어선 조업 불가”

해양수산부가 7월 갈치 금어기 시행을 올해 유예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소형 어선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림수협 소속 선주들로 구성된 제주연안복합어선주 7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해연승어업 갈치 금어기 해제를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매년 시행되던 7월 갈치 포획 금지 기간을 올해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국민 밥상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당초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갈치 포획이 금지됐다. 갈치 집중 산란기에 과도한 조업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연안복합 어선은 10t 미만 소형 선박에 속해 조업량이 적어 금어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금어기 해제 소식이 시행 일주일 전에서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소형 어선주들은 피해를 주

장하고 나섰다. 10t 이상 근해연승 등 대형선박이 빠진 7월 금어기 기간 조업이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연안복합 어선의 갈치 조업시기는 5~10월이며, 근해연승은 7월을 제외하고 연중 조업이 가능하다.

2년 전 제주로 귀여한 선주 오종

현(53)씨는 “7월 갈치 조업을 준비하며 큰돈을 투자해 선박을 마련했지만 금어기가 해제된 탓에 조업을 못하게 됐다”며 “1년 내내 조업하는 큰 선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작은 어선들은 갈치 조업에 나설 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 한림수협 소속 연안복합 선박은 약 200척, 근해연승 선박은 약 30척으로 알려졌다. 특히 7월에는 한림 연안으로 어류들이 이동해 타 지역 선박들까지 물리는 탓에 금어기 해제로 인한 소형 선박 피해가 더 불어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연안복합 선주들은 “해수부가 일시적으로 금어기를 해제하는 바람에 근해연승 어선들은 연안으로 더 들어와 있다”며 “연안복합은 조업할 곳도 없어지는 와중에 근해연승을 피해 더 멀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안복합 및 채낚시 선주와 선원들은 수익은커녕 고물가를 뚝소 체험하게 됐다”며 “해수부는 어민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회의 과정과 참석 단체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지난달 30일 제주연안복합어선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7월 근해연승어업 갈치 금어기 해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양유리기자

제주공항서 실탄 2발 소지 타 지역 경찰 적발

경찰, 실탄 소지 경위 등 조사

현직 경찰관이 제주국제공항에서 실탄 2발을 소지한 채로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가방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다.

가방의 주인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30대 현직 경찰관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탄 2발을 수거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실탄이 맞는지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당시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6일 A씨가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올 당시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며, 실탄 소지 경위 및 비행기 탑승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제주공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30대 남성이 보안검색대에서 실탄을 소지해 적발된 바 있다.양유리기자

친수공간 대신 방제센터… ‘공사 중지’ 명령

환경단체 의혹 제기에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 확인”

외항10부두 앞 공사 중단… 제주도 “대응 방안 검토”

제주외항 방파제에 항만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던 ‘해양공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해당 부지에서 진행중인 공사를 잠정 중단시켰다.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친수공간 부지였던 제주외항 10부두 앞 공간에 이뤄지고 있는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 이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3일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약속한 친수공간인 해양공원이 오랜 기간 조성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불법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제주외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 친수공간인 해양공원 조성 계획이 담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제주외항 방파제 축조 실시설계 용역보고서·환경영향평가서(2000년)’에는 토지이용계획 상에

항만친수시설용지 4만1500㎡가 명시됐고 해양공원이 두 구역에 나뉘어 계획된 것으로 표시됐다.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는 저감방안으로 ‘해양친수공간 확보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1년 10월 제주도가 제주외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라 ‘친수시설’을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로 변경고시했고, 해당 부지에서는 제주도의 시행 허가를 받아 지난 2월부터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돼 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매립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에 해당 공사 중단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응 방안을 논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방제대응센터) 공사 중지 건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상 복구를 할 것인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솔잎란 자생지 강정천 공사 중단하라”

강정마을 주민들 기자회견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정교 인근 도로공사로 인해 강정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재차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에서 벌어지는 생태 파괴를 멈추라”고 말했다.

단체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인해 강정교 구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솔잎란’ 자생지가 파괴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서귀포시는 솔잎란 대체 서식지 이식 평가 사업을 추진했다”며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정착하고 스스로 번식하는지 검증하려면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 산하 한라산연구소는 현장조사를 통해 강정천 솔잎란 자생지 대체부지 이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연산강 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최근 설계 변경도 없이 공사가 재강행됐다”고 규탄했다.

양유리기자

해수욕장 안전요원 근무 중 음주… 시민이 신고

읍사무소, 당사자 결근 처리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한 민간안전요원이 근무 중 음주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 첫날이었던 지난달 24일 함덕해수욕장에서 민간안전요원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셨다는 시민의 신고가 조천읍사무소로 접수됐다.

확인 결과 A씨는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사실을 확인한 읍사무소는 A씨를 결근 처리했

다. 현재 A씨는 정상 근무 중이다. 수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투입된 안전요원들은 해수욕장 개장 전 심폐소생술 및 근무 중 음주금지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이수한다.

제주시는 해당 안전요원의 근무 중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각 읍면동에 사전교육 재 실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덕해수욕장은 제주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해수욕장이다. 지난해 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은 총 144만 명으로, 이 중 함덕해수욕장 방문객만 70만명이 넘는다.

양유리기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 758-0065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